

성명	유화정	수험기간	2022.03.~2024.07.
학교	성균관대학교	전공	융합생명공학부
키워드	부진정동차 특하고득점		

들어가며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영광스럽게도 이번 61회 변리사 시험에 석차 89등 부진정 동차로 합격하게 된 61기 변리사 유화정이라고 합니다. 처음 시험 진입을 결심하고 끝을 모르는 터널 속을 걸어 들어가며 이런저런 걱정을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신차리고 보니 합격을 하여 이렇게 수기를 쓰게 된 것이 너무나도 꿈만 같습니다. 시험 준비기간은 모두에게 한없이 길었음에도 합격 후 단 며칠만에 인생이 180도를 넘어 1800도로 뒤집힌 것만 같습니다.

혹여나 지금 터널의 중간에서 헤매이며 곧 만나게 될 쏟아지는 빛의 세계를 꿈꾸고 계신 수험생분들께 제 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참으로 기쁠 것 같습니다.

터널의 길이는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에는 끝이 있습니다. 부디 그 빛의 목전에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리사 시험 진입】

저는 진로를 비교적 일찍 정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변리사 시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20년도에 3수 끝에 대학교에 입학하고 코로나를 맞이하였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변리사 시험은 동차로 합격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합격을 하게 되었지만, 고등학교 재학시절과 재수 삼수시기에는 학업적으로 실패감과 절망감에 많이 휩싸여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멋모르던 중학교 시절 운 좋게도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덜컥 합격을 하게 되었고, 우물 안 개구리였던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반으로 해외 대학의 꿈을 품었다가 국내반으로 옮기고, 또 새롭게 접하는 수능수학의 세계와 내신, 의대입시 등을 거쳐 결국에는 의대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로 자연과학 계열로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고등학교만 가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이 인생의 전부인줄만 알았습니다. 늘 넓은 세상에서 헤엄치고 싶었던 저이지만 아이러니하게 좁은 우물안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입학 당시에는 남들보다 늦었다는 생각 뿐이었고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의 진로에 관한 고민이 무척 많았던 거 같습니다. 때마침 코로나 학번으로 등교도 요원하던 시절이라 진로에 대해 찾아보던 저는,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여러 측면에서 저의 성향과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배님들께서 진로를 정하심에 있어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가 생각한 변리사가 잘 맞을 것 같은 특성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먼저 저는 어려서부터 이공계열쪽 과목(수학, 물리)보다 국어나 영어쪽으로 더 발달이 되어 있었고 책을 읽고 논리적으로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어서, 법공부가 특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직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자연과학계열 특성상 학사취직이 어렵고 대부분의 과친구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고등학교 때 학술논문을 쓰며 경험을 해 본 결과 창의적으로 실험이나 학습목표를 설계하여 연구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에 크게 재능과 흥미가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상황이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을 좋아하여 발명자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그 기술을 실체화해서 정리하는 명세서 작업이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유대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향에 맞게 클라이언트 분들과 만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이와 관련해서는 재택근무 또는 사무실에서 영업 외로 명세서 작성을 주로 하는 업무도 가능하여 성향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합격 이후에는 각 전공별 기술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공부하여 실력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점에서 끝없이 공부하는 직업이기도 하다는 점 또한 강조드리며, 혹여나 지금까지 과거의 실패 경험으로 인해 위축되어 계셨다면 언제든지 내가 꽃필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오기 마련이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시기별 공부방법】

☑ 초시 기간 (2022년 3월~ 2023년 2월)

점수: 민법 77.5 산재법 77.5 자연과학개론 50 평균 점수 68.3점

전년도 커트라인이 81.6이어서 각종 학원과 커뮤니티에서 커트라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나 70.8이라는 다소 많이 낮아진 커트라인으로부터 2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먼저 **월별로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실패 이유 분석**해 보겠습니다.

(1) 3월과 4월 - 가장 먼저 한 것은 **앉아있는 법을 연습**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인 고시입문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공부시간을 확보하고 루틴을 만들어 가시는 것일텐데, 특히 처음에는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저는 수험 생활 내내 열풍타라는 앱을 사용하여 조금씩 집중도와 순공부 시간을 늘려가는 연습을 하며 루틴을 만들어 갔습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 한달씩 적응기간을 거쳐 루틴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먼저 변리사 시험 진입시 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인 민법 기본강의를 3~5월 두 달간 들었습니다. 윌비스 학원의 김동진 강사의 입문강의와 기본강의(약 170강)를 수강하고 복습 자료로 나눠주신 오엑스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당시 처음으로 법 공부를 하는 터라, 암기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머릿속에 남는 것은 없고 비슷비슷하고 생소한 개념들이 한번에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법 공부를 시작하시면 대부분의 강사님들께서 1)세부적인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붙잡고 파고들지 말아라**, 2) **서브노트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초시때 이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절대 다수가 하라는 대로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 수험이니 웬만하면 단기합격생이나 고득점자, 그리고 누구보다도 수험생들을 많이, 가까이에서 지켜봐오신 강사님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법 기본강의를 수강하며 노트정리를 하며 복습을 했는데 나중에는 방대한 양에 지쳐 진도만 나가고 뒷부분은 5월 중순에 김동진 강사님 필기노트에 내용과 목차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1회독과 복습이 너무 오래 걸려 후회합니다. 게다가 내용이 빠졌을까 불안해져 오히려 그 자료는 거의 보지도 않기에,,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여나 하시다가 도중에 '이거 아닌데'싶으시면 저처럼 괜히 끝까지 하시지 말고 당장 버리고 시간을 아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민법 진도와 함께 화학 기본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문제풀이는 강의시간에 풀어주시는 것 위주로 알게 보고 강의 진도 빼는 데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생물과 지학의 경우 수능 때 지1 생2 선택자여서 베이스가 있어서 바로 기출문제를 격일로 한 세트씩 풀었고 4월달에 토익을 바로 응시해서 따 두었습니다. 특허법 조문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하루에 7조 정도씩 읽어 1회독 하였으나 머릿속에 남는 건 없었습니다.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공부하고 주1회정도 휴식하였습니다.

(2) 5월

이후 5월에는 2차 공부 중 민사소송법을 미리 해두면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지라 이창한 강사님의 민사소송법 기본강의(약 120강)를 들었습니다. 이때는 나머지 1차 과목도 제대로 못한 상태였어서 마음이 급해 진도만 나가고 복습은 거의 못한 채로 6월 중순까지 한달 동안 빠르게 들었습니다. 화학 기본강의를 완강하고 생물과 지학은 계속해서 기출풀이를 하였으나, 못하는 날도 꽤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전히 하루 평균 8시간~9시간 정도 하였고 일주일에 하루는 꼭 나가서 놀았습니다.

(3) 6월

민사소송법 강의를 완강하고 물리 기본강의(약 60강)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화학 기출문제를 풀며 민법 오엑스 문제로 복습을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물리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복습하여 공식을 정리하는 것이 꽤나 어렵고 힘들어서 시간 소모를 많이 하였습니다. 거의 한달 동안 물리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공부 하는 날에는 10시간 정도 하였으나, 주1회 또는 반휴로 이틀 정도 쉬었습니다.

(4) 7월

정신을 차리고 보니 7월인데 한 것이라고는 물리, 화학, 민법 뿐이어서 이 시점부터 마음이 매우 조금했던 것 같습니다. 7월 말이 되어서야 특허법 기본강의(약 90강)를 듣기 시작하였고, 민법의 경우 오엑스로 2회독을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날은 좀 줄었고 평균적으로 10시간 이상 하였으며 11시간 넘기는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5) 8월

특허법 강의 진도를 나가면서 화학을 하루에 10개 정도씩 풀려고 했고, 이때 문제풀이 인증 스테디를 활용했습니다. 생물과 지구과학의 경우 오픈 채팅방으로 나눠주시는 강사님들의 오엑스 자료나 기출 자료 등을 활용해서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공부시간은 10시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거의 없었으며 이때부터는 아프거나 하지 않는 이상 주 1일만 쉬었고 11시간 넘는 날도 일주일에 2일 정도 되었습니다.

(6) 9월

특허법 기본강의를 마무리하고 민법 기본서(민법공방) 회독에 들어갔습니다. 오엑스나 복습 외에 처음으로 기본서를 제대로 꼼꼼히 보기 시작했던 회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시작에 앞서서 민법과 특허법 기출을 한 회 풀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주에 들어가서는 민법공방연습과 해례객관식(특허기출집)을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정말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시간은 8월달과 비슷하였으나 간혹 12시간 이상 공부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7) 10월

상표법 기본강의(약 50강)를 듣기 시작하였고 민법공방연습을 사례 제외 1회독 하고 특허 기출 객관식은 절반, 물리 복습과 생물과 지학 기출문제를 틈틈이 했습니다. 민법공방 기본서 1회독을 마쳤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매주 또는 격주로 회독한 분량만큼 만나서 문제풀이를 하는 스테디도 했는데, 진도 강제에 도움이 되었으나 오프라인이다 보니 집중도 있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스테디는 웬만하면 온라인 스테디를 추천드립니다.

한 달 공부시간이 300시간 이상 되기 시작했고 10-11시간이상 평균적으로 했습니다.

(8) 11월

디자인 보호법 기본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민법공방연습과 민법공방 2회독에 들어갔습니다. 특허 기출문제를 풀다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서 멈춘 채 기본서 회독을 쟁점별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리 개념 복습과 생물지학 기출문제를 하면서 상표법 기본서 회독을 하였습니다. 상표법 기출문제집 풀이를 시작하였고 디자인 보호법 기출문제를 1회독 하였습니다.

순공부시간은 10-12시간 왔다 갔다 했고 12시간 넘는 날도 꽤 생긴 것 같습니다.

(9) 12월~ 23년 2월

전과목 진도가 끝나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회독과 문제풀이를 짬나는 대로 병행하며 모르는 개념을 그때그때 정리해서 암기하곤 했습니다. 민법과 특허법 기출을 년도별로 시간 재고 푸는 스테디를 했었고, 민공과 민공연은 1대1 비율로 마지막까지 끌고 간 것 같습니다. 생물 기본서를 회독하며 빠져있는 개념을 채우고 지구과학도 박준희 강사님 강의를 들으며 정리해서 암기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박준희 강사님 교재에 있는 년도별 기출을 계속 돌렸습니다. 특허는 요약서로, 상표는 기출문제집으로, 디자인보호법은 김웅변리사님의 기출집과 조문집, 그리고 마무리 강의로 마무리 했습니다.

순공부시간은 12월에 하루 평균 10-12시간, 1월에 12-14시간, 2월에 13-15시간 정도 한 것으로 나옵니다.

(10) 실패이유 분석

초시의 경우 민법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서브 노트**를 만들었던 것이 진도와 회독을 더디게 만들었던 패착요인이었고, 또한 생활습관 면에서도 **휴식이 아닌 약속**을 잡고 노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푼 것이 남은 주간 공부 시간에도 여운을 남겨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상대적으로 혼자 앉아서 생각할 시간이 많은 고시생에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누는 이야기나 경험들이 걱정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아 공부에 충분히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열풍타로 측정한 공부시간에 비해 온전히 밀도있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과목수가 너무 많아서 진도를 다 나간 시점이 이미 너무 늦은 11월 이었던 만큼 **회독수가 많지 않았고** 상표와 디보법의 경우 기출

풀이가 1회독에 그쳐 절대적인 공부량 역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공부 시간에 집착**하여 제 스스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떨어질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마무리 공부를 했기에 2문제 차이로 60회 1차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재시(23년 3월~ 24년 2월)

점수: 민법 90 산재법 92.5 자연과학개론 52.5 평균 78.3

자연과학의 경우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나마 법과목을 고득점하여 합격하였으나 커트라인 76.6점으로부터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후배 수험생분들은 꼭 자연과학을 탄탄히 대비하시길切願드립니다.

(1) 23년 상반기 2차 공부

***불합격에 대한 불안감:** 가장 먼저 저는 60회 1차 성적이 60점대로 매우 낮았고 시험이 무척이나 어려워 커트라인이 전년도 81.6에 비해서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어서 불합격에 대한 불안감이 무척 커서 마음 편히 2차 공부에 전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합격자 발표가 나는 3월 말까지는 각종 학원 게시판과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1차 응시자 표본을 모으고 합격선을 가늠하며 1차를 다시 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느라 3월을 고스란히 날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시분들 또는 3시로 1차를 다시 보셔야 하는 분들이 이 수기를 보고 계시다면, 반드시 꼭 넉넉한 합격 점수를 목표로 하시어 가채점 후에 커트라인에 구매받지 않고 온전히 동차 시기의 2차 공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시기별 커리큘럼:** 저는 3월에 불합격을 확인하기 전에는 거의 허송세월을 보냈지만 합불여부를 떠나서 내년에라도 합격하기 위해서는 당장 2차 공부를 해야한다는 것을 느끼며 민사소송법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22년 5월에 이창한 강사님 기본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기에 기본강의(약 120강)와 사례강의(약 90강)를 통합 민사소송법을 베이스로 듣기 시작하였고, 4월 말에 기본강의를 완강하고 이후 민사소송법 기초 지에스와 박형준 변리사님의 특허 기초 지에스 플러스, 상표 사례집을 병행하며 늘어지기 시작해서 6월 중순에 민사소송법 사례강의를 완강하였습니다. 자세한 커리큘럼은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풀커리)	3월	4월	5월	6월	7월
민사소송법 (이창한)	민소 기본	민소 사례	민소 사례, 기초 gs	실전GS B	회독
특허법 (박형준)	기초 GS 플러스 총알 암기	기초GS 플러스, 총알 암기	실전 GS, 기본서 회독	박형준 콜라보	회독
상표법	테마 사례집 회독	사례집 회독, 판례암기스터디	사례집 회독, 사례 목차 암기 스터디	한경훈 콜라보	회독

*방향과 마음가짐:

대부분의 재시생 분들께서 그럴 것이지만 당장 올해 2차를 응시할 수 없다는 허탈감과 아무리 빨리 붙어도 1년 반 뒤라는 현실이 공부 의욕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때 포기하면 합격은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저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 생동차로 한번에 붙을 확률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만약 23년 상반기에 2차 공부를 충분히 해둔다면 **내년에 2차 기회 두 번을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기득분들과 비교해도 7월말에 시험을 치고 나서 합격발표 때까지 밀도있게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임을 고려하면 기득분들과 1차를 다시 봐야 하는 저의 차이는 11월~2월 1차 직전인 3개월 정도로 좁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의 물리적인 차이는 나머지 기간동안에 더욱 밀도있게 공부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기득의 실력으로 떨어지더라도 2차 기회가 한 번 더 남게 되면 다른 분들에 비해 기회가 더 생기기 부담이 덜할 것으로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정신승리도 1차를 다시 쳐야 한다는 허탈감이 컸기에 풀출력으로 달릴 수는 없었지만, 결국 부진정 동차로 합

격하고 나니 그때의 마음가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결과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길은 언제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스터디 활용:**

다만 마음가짐과 실제 현실은 괴리가 있었기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동기를 얻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스터디를 두 개 정도 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스터디는 온라인으로 진도나 인증스터디, 또는 전화암기 스터디 등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하며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추천드리지만, 위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함께 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오프라인 스터디는 지역 분들과 함께한 **오프라인 쓰기 스터디**였습니다. 특히나 동차생분들이시라면 처음에 가장 힘든 게 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빈 답안지 한 권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을 견디는 것입니다. 처음 지에스 문제를 보면, 분명 1차때 했던 특허나 상표 과목의 기초 지에스여도, 논점이 무엇이고 대체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며 목차가 무엇인데 그렇게 목차를 강조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판례를 어떻게 활용해서 써야 하며 사례의 해결은 도대체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이 하나도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저 망망대해 속에 던져진 기분만 들 뿐이죠.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혼자서 지에스를 작성하다 보면 그저 포기하고 자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함께 모여서 시간을 재고 옆사람 눈치를 보며 지에스를 작성하는 오프라인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주말에 지에스 다녀와서 늘어지기 쉬운 월요일 오전과 낮에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끝나고는 지에스 복습을 하는 식으로 해서 주중 공부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외향적인 저에게 휴식 느낌을 주는 방향으로 잘 활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 근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던 것을 옮겨서 학교 열람실에서 통학하며 공부하고 밥먹는 **생활스터디를 가입**하였습니다. 기상과 착석 루틴을 유지할 수 있었고 밥을 같이 먹는 스터디원들 덕분에 동기부여도 하고 힐링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2-3달 가량을 학교를 다니며 매너리즘과 우울감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고, 지나고 보니 그때가 제 수험 생활중 **슬럼프가 가장 크게 왔던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휴식(7월말-8월):** 6월달 지에스가 끝나고 나서는 정말로 회독을 열심히 할 의욕이 쉽사리 생기지 않아 오프라인 스터디를 활용하며 최대한 현상유지 정도로 기본서 회독을 하였고, 지에스 회독은 거의 하지 못한채로 시험 날짜가 되었습니다. 이후 8월달까지 여행도 다니고 집에서 휴식도 취하면서 하반기에 1차를 다시 응시하기 위한 계획을 짰던 것 같습니다.

(2) 23년 하반기 1차 재시 공부

***시기별 커리큘럼:** 1차의 경우 과목이 워낙 많고 과목별, 시기별로 회독 주기가 다 달라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대략적으로만 정리한 것이니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민법	민법공방 1회독, OX1회독	민공연1회독 , 민공2회독	민공연 1.5회독	민공 3회독,민공 연2회독	민공4회독, 민공연 3회독	민공5.5회독 , 민공연4회독	민공9회독, 민공연 5회독
특허법	리담 조문 빈칸 뚫고 회독	해례객1회독 , 조문암기 2회독	조문암기 2회독	해례객 2회독	조문3회독	해례객 3회독, 조문 5회독	해례 모의고사, 조문 6회독
상표법	중급강의	조문암기 1회독	박영룡 기출객관식	조문암기 2회독	박영룡 기출객 2회독	기출객 3회독, 조문 3회독	기본서, 개출객, 조문
디자인보호법	중급강의			김웅기출객	기출객2회독		기출객 3회독
물리		로한 기본강의	로한 기본 강의 완강		공식집 암기 1회독	공식집 암기 3회독, 기출1회독	공식집 5회독, 기출2회독
화학			화학IFF강의			기출 0.5회독	기출1회독
생물					뉴런 1회독	핵따생 0.5회독	뉴런 2회독
지구과학				박준희 기본서 1회독		기출문제1회 독	기출문제 3회독

4주-3주-2주-10일-1주일-4일-2일-1일 정도로 계속해서 회독을 하며 주기를 줄여나가는 8421 공부법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시험 전날 또는 전주에 **전과목 1회독**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회독할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공부하였습니다.

*조문 암기,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별 공부법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초시때에는 조문의 중요성을 그다지 체감하지 못한 채로 그저 썬으로 암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강해 조문을 적극적으로 암기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객관식을 푸는 속도도 나지 않았고 기본서를 회독해도 산업재산권법의 세 법들의 내용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헷갈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60회 산재법 시험에서 헷갈렸거나 틀렸던 선지들의 대부분이 조문 암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임을 깨닫고, 조문에 빈칸을 뚫어가며 제대로 외워보기로 결심하였고, 1차 재시 기간 내내 조문 암기는 자투리 시간인 밥 먹을 때나 자기 전 30분 정도를 활용하여 **최소 하루 4페이지 이상씩 암기**를 하였습니다.

*모의고사 활용

1차 시험이 임박하는 1월과 2월이 되면 학원들에서 각종 모의고사를 열게 됩니다. 특히 재시 이상분들의 경우 기출문제도 여러번 보신 상태일거라 내가 개념을 알고 푸는지 그냥 답을 외운건지가 헷갈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또 **실제 시험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연습을 꼭 최소 한번이상 해보시길 권합니다. 저의 경우 시험이 임박하는 날까지 긴장을 잘 하지 않지만 전날 밤에는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심원을 먹고 잠을 청하는 전략을 세웠고, 이러한 전략을 실제 사용하기에 앞서 부작용이나 다른 문제는 없는지 꼭 미리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모의고사 전날 음식과 입을 옷, 도시락, 잠에 드는 시간과 하루의 생활 루틴 등을 전부 미리 연습하여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부시간

재시 기간에는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공부 습관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했던지라, 7-8월에는 하루 8시간 정도 하였고 9-10월부터 하루 9시간 이상, 11월과 12월에는 10시간 가량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1월과 2월쯤 되어서는 11시간 가량을 목표로 공부한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측정시간에서는 초시 때보다 적어졌음에도 하루에 해야 하는 분량을 과목마다 페이지수

별로 정해서 순서대로 오전 오후 저녁타임에 걸쳐 해내다 보니 더욱 **밀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더 많은 분량의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 동차 기간 (24년 2월 말~ 7월 말)

(1) 시기별 커리큘럼:

1차 시험이 끝나고 가채점을 해본 뒤에, 78.33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합격을 예상하여 3일 쉬고 바로 그 다음주 수요일부터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민사소송법		목차암기, 기본서1회독	기본서2회독 이창한실전 A	기본서3회독 곽준형실전B 사례집 목차잡기	기본서4회독 이창한실전B 사례집2회독 민소기출3개년	회독, 암기
특허법 (박형준 커리)	도약지에스 기본서 회독	박형준실전A 총알암기 2회독	준사례 상편 목차잡기 스터디	박형준콜라보 기초플 암기	박형준콜라보 바주카포	준특허 회독, 암기
상표법	도약지에스 기본서 회독	김세원 실전 테마사례집	기출 4개년 목차, 판례암기	김세원콜라보 한경훈피날레	한경훈 피날레2회독	회독, 암기
저작권법			김선화 기초	저력 회독 기출 6개년	실전 목차	회독

(2) GS 등수

	3월	4월	5월	6월
민사소송법		상위 79~ 97%	상위 71~96%	상위 38~77%
특허법	상위 78~95%		상위 55~70%	상위 58~78%
상표법	상위 44~91%		상위 84~97%	

(3) 동차의 마음가짐: 절대 포기 금지!

어쩌면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지만, 동차생 분들 또는 예비 동차생 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가 기득 생활을 직접 해 본 것이 아니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주제넘을지도 모르지만, 동차를 포기하는 순간 기득도 위태로워지고, 기득에서 삼시로 넘어가는 것은 더욱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동차 합격이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만약 동차 시기를 포기하시면 기득때 풀출력으로 최선을 다해도 방향성이 맞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달려야 할지 감이 잡히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기득에서 떨어지면 바로 1차를 다시 응시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에 기득분들의 마음은 동차생들의 압박감과 비교도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지에스 등수도 내내 낮은 편이었기에 더더욱 올해 합격을 내다볼 수 없었음에도, **또 다시 이번처럼 공부할 자신이 없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이 끝나고 나서 7월부터 10월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 혹시 모를 합격을 기대하며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떨어지고 내년엔 할 공부가 무섭고 두렵다가 보다 내년 시험을 치르고 나서 3달간 발표 전까지 느낄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할지가 가장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동차 시기에는 반드시 열심히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풀로 달렸을 때 어느정도 성장하고 어떤 것들이 **시행착오**였는지 파악해서 기득이후를 위한 방향성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차 기간에 열심히 해둔 불동차들만이 불기득으로서 한번에 기득으로 합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차를 열심히 보내는 것’을 목표로** 동차 시기 약 150일 가량을 보내시다 보면 저처럼 어느 순간 합격을 마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운도 실력이지만, 그 운은 준비된 자만이 낚아챌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4) 공부시간:

1차 시험이 끝난 이후로 약 5개월, 즉 약 150일 가량이 남아있는데, 저는 이 기간이 지난 1차 준비를 해온 2년의 기간에 비해서 무척이나 짧게 느껴졌기 때문에 쉬지 않고 달리기로 하였습니다. 1차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정 딱 하루를 제외하고 (3월 말) 월요일에도 오전이나 반나절만 늦잠을 자거나 하는 식으로 휴식하고 **하루를 통째로 쉰 날은 없습니다.**

저는 변리사 시험에 2학년이 끝난 뒤에 바로 진입하였던 터라, 휴학이 한 학기 밖에 남지 않았고 학업도 2년이나 남아있었기에 2차 시험이 끝난 뒤에 복학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득 분들에 비해 하반기 공부량이 부족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부분 까지도 동차 기간에 채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150일만 참자는 마음으로 쉼 없이 달렸습니다.

3월에는 **매일 10-11시간** 정도, 4월에는 전화 암기 시간을 포함하여 **매일 11-12시간정도**, 5월에는 **12-13시간 정도**, 6월에는 **13-14시간 정도**, 7월에는 **13시간 이상**을 평균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감기에 크게 걸리지 않았고 (사람을 안 만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저 기간이 짧다는 생각이 강했기에 슬럼프가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목별 공부방법 - 1차

【민법】

끝까지 기본서와 객관식을 병행하고 **시험 전날 민법 기본서 1회독**을 하고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참고 진도를 나가시는 것을 목표로 하여 눈에 바르다 보면 어느 순간 내용 전체가 유기적으로 이해되며 암기가 되게 되므로, 방대한 양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읽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것이 생겨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용기가 단기합격을 위해 꼭 필요한 덕목 같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외울 수 없을 것만 같던 내용들이 여러번의 반복을 통해 익숙해지면 어느샌가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특허법】

조문으로 시작해서 **조문으로 끝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조문 빈칸 자료를 활용하시어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빈칸 자료가 없어서 회독을 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직접 빈칸을 뚫고 스터디원과 빈칸 채우기 스터디를 4주 주기로 하였고, 점차 주기를 줄여나가며 상표법 빈칸을 추가하였습니다. 저는 리담 특허법 조문집을 활용하였는데, 당시 딱 100페이지 가량이라서 하루 5페이지 정도씩 20일 분량, 즉 4주로 나누어 하루에 암기해야 하는 양의 부담을 줄이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암기했습니다. 다른 공부를 하느라 도저히 할 시간이 없는 날에는 자기 전 30분이라도 짬을 내어 암기하고 난 뒤에 자거나 쉬었습니다.

【상표법】

상표법은 시간이 없는 만큼 해설이 기본서만큼 자세한 박영룡 강사님의 위닝 기출객관식을 선택하여 기출문제와 기본서 회독을 동시에 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각 선지별 해설 뿐 아니라 관련 판례와 연관된 내용, 암기 해야 할 내용과 이해에 필요한 배경지식 등까지 함께 자세히 실려있어서 **기출 문제집**을 해설까지 선지별로 상세히 회독하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기본서 회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느꼈습니다. 기본서는 길상표법을 회독하려고 했으나, 800페이지 가량의 방대한 양을 회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중도 포기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디보법 역시 기출문제와 조문집을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60회에서 61회로 넘어가는 시기에 디자인 보호법의 개정이 다소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김용 강사님의 기본서를 새로 사서 1회독을 하며 제가 몰랐던 내용이나 헷갈리는 판례들을 체크한 뒤 기출문제집을 활용해서 빈 곳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의 경우 대부분의 개념이 조문에 나와있고 여러 종류의 디자인 별로 출원과정과 디자인권의 특성에 대해 구별해서 암기해야하는데, 이 때 **기출집과 조문집**을 잘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초시때부터 김웅 변리사님의 강의와 책을 활용했는데, 특히 조문집에 기본서의 핵심내용과 자주 헛갈리는 기출문제가 오엑스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어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때 추천드립니다.

【자연과학개론】

이과생 분들의 경우 베이스가 있는 과목이 한두 과목 정도는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생물과 지구과학이었고, 베이스가 있으신 과목은 평소 공부하실 때에 하루 10-20분 정도씩 잡고 기출 문제 풀이 정도로 꾸준히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베이스 없으신 과목이 물리나 화학이라면 상반기나 가장 먼저 강의를 들으시고 남은 기간 동안 문제풀이로 실력을 쌓아가시길 추천드리며, 특히 자연과학의 경우 등한시하기 쉬운 만큼 **매일 한시간 이상**의 공부시간을 습관적으로 확보해 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화학 과목의 경우 1시간 동안 40문제를 풀어야 하는 긴박한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공격적으로 공부할 단원과 방어적으로 공부할 단원(주로 계산이 많고 오래걸리는 속도평형쪽)을 나누어 강약조절하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목별 공부방법 - 2차

【총론】 89등 부진정 동차 합격

2차는 1차와 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1차는 조문 암기만으로도 버거웠다면, 2차때는 수많은 학설들을 다 외우고 현출해서 직접 써내야 합니다. 따라서 방대한 양을 무한정 회독하여 눈에 바르는 방식으로 충분히 대비 가능한 1차 시험과는 달리, 2차때는 **책을 통암기**할 각오로 공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운 것을 직접 빈 답안지에 현출해야 하는데, 외운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닌 **사례를 읽고 논점을 추출**하여 그 논점과 관련된 선결논점, 각종학설들과 판례를 **논리적으로 배치하여 목차**를 잡고 해당 문제의 **출제의도에 맞도록 사안을 해결**하는 능력까지도 요구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암기는 기본 도구이며, 그러한 도구를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합격선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크게 **(1)암기**와 **(2)답안 작성**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58.3점/19쪽

저는 2차 응시 경험은 1번이지만 1차를 두 번 응시하게 되면서 2차 공부를 초시 기간과 재시 기간에 미리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초시 기간에 이창한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들었고 당시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는 알고 난 뒤에 재시때 기본강의를 다시 듣고 사례 강의를 듣고 기초와 실전 지예스로 2차 민사소송법 공부를 체계해 보았습니다. 작년 7월에는 지예스 때에도 거의 아는 것이 없었고 해설을 이해하고 복습하는 것이 버거울 정도의 실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암기는 못했어도 한 바퀴 이상 **이해는 해 두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올해 동차 기간 시작과 동시에 다른 강의 없이 바로 기본서 암기와 회독을 시작하도록 해준 토대가 되어 시간을 많이 아껴준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시간이 없는 만큼 얇은 책을 여러 번 회독해서 통암기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에 처음에는 이창한 강사님의 “암기노트”라는 책을 선택하여 회독하였습니다. 일단 통합으로 2년 연속 공부했고 무엇보다 이창한 강사님의 자세하고 정확한 강의 덕에 이해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였기에 통합과 호환되는 암기노트를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강사님께서 교과서에서 밑줄 쳐주시며 읽어주시는 부분을 다 뽑아서 모아둔 것이 암기노트인 것 같아, 저처럼 이해가 되었지만 암기할 것을 추리고 싶은 통합베이스 분들께 암기노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2차 공부의 핵심인 암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따로 짬을 내서 암기를 해야만 했고, 이는 혼자서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관해 저는 분량을 정해서 전화암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스터디원과 상의해서 교재를 통일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비슷하게 얇은 윤곽 민사소송법을 최종 4월달에 선택하여 암기하기 시작했고, 그 덕에 교재에 대한 고민을 하느라 교재를 본격적으로 암기하기 전에 빠르게 회독하는 데에만 한 달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빠르게 교재를 선택하시고 그것을 빠르게 외우기 시작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중요

한 내용은 (특히 동차생이 소화 가능한 범위에서) 암기노트이든 윤곽이든 얇든 두껍든 다 들어있을 것이며, 그 내용이 적더라도 완벽히 암기하는 것이 잘모르는 짬돌 논점까지 얇고 넓게 이해함에 그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인 득점 방법이므로 “**내가 암기하기 좋은 책**”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4월부터 스터디원과 평일 매일 40페이지 분량 정도씩을 암기해서 분량을 나눠서 암기하고 현출하는 전화 암기 스터디를 했는데, 처음에는 각주 빼고 모든 판례를 다 외우다 보니 전화 암기를 하는 시간만 2시간 가까이 걸려 매일 40페이지를 스스로 읽으며 외우고 밤에 자기 전에 전화로 읽고 말하며 그 부분을 다시 외우는 생활을 한달주기로 하였고, 추후 3주 정도로 줄여서 마지막에는 2주동안 1회독을 하는 방식으로 **책 전체를 암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차가 뭔지도 몰라서 판례 별로 내용과 키워드가 뭔지를 현출하고, 그 이후에는 각 목차별로 어떤 주제와 학설, 판례들이 있는지를 점차 정밀하게 순서대로 현출해 나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예스의 경우 4,5,6월 내내 실전 세 세트를 실강으로 들었고, 천하제일민소대회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민사소송법의 중요성이 큰 변리사 2차 시험의 특성상 매달 민소법을 쓰며 **50프로 이상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는 5월달부터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보며 목차 잡는 법을 연습하기 위해 윤곽 민사소송법 사례집을 하루에 25문제씩 풀어 1달간 1회독을 하였습니다. 이 시즌에는 길게는 하루에 8시간동안 사례집만 푼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6월달까지 1.5~2회독 가량을 한 뒤 7월에는 다시 지예스로 돌아가 마무리 회독과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사례집을 통해 많은 유형과 논점의 문제를 연습하며 목차를 잡는 연습을 한 것이 추후 암기가 채워지면서 급격하게 민소 실력이 오르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법】 54점/20쪽

저는 박형준 강사님 커리를 재시때부터 동차때까지 오롯이 땀과, 세 과목 중 난이도에 비해 가장 고득점(54점)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목차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알,바주카포 암기:** 박형준 변리사님의 암기 자료인 총알과 7월달에 나누어 주신 동차생을 위한 자료인 바주카포를 활용하여 3월부터 7월까지 주요 논점에 대한 판례들과 단문 대비 기본 목차를 암기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을 4주간 돌리면서 2주씩 나누어 특허와 상표 암기를 낮에 했고, 그러한 루틴으로 한달마다 민특상 전체에 대한 암기를 한 회씩 쌓아나갔습니다.

***기초플러스, 도약지예스:** 추후 목차에 관련해서도 언급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실전 지예스의 목차를 암기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기초 플러스 지예스에 나온 기본 논점들의 목차를 파악해 두었다가 각 문제에서 필요한 논점들을 버무려서 사용하기 위해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어야 할 도구로서 쟁점별 목차를 암기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 18회 분량으로 특허법 전범위에 걸쳐 기본논점으로 알아두어야 할 목차를 모아둔 기초플러스 강의를 기본서 진도 및 회독과 함께 활용하시면 무척 효율적으로 특허법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준사례 상 목차잡기:** 3월에 실전 지예스를 수강하며 따로 도약 지예스 목차를 잡고 총알을 암기한 뒤에는 불완전하게나마 제게 생긴 도구들을 실전에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기출 문제를 풀어보며 기출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4월달에 기출 지예스가 열렸었는데, 지예스의 경우 4주간 8세트의 풀답안을 써보는 것이지만 사례집 목차를 잡으면 한 회에 1시간씩 총 16회차를 잡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이를 수강할지 사례집 목차를 잡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작년부터 실전 지예스를 들었고 당시 제가 필속이나 답안지 작성 속도는 한 권을 채우거나 조금 넘기는 정도로 느린 편이 아니었기에 변리사님과 상담 후 과감하게 사례집 목차 스터디를 4월에 진행하였고, 어렵다는 변리사 기출문제 16회분량을 한달만에 1회독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본 것이 이후 콜라보 시즌에 등수를 20퍼센트 가량 끌어올리면서 특허법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준특허 기본서 회독:** 저는 다른 합격자 분들과 다르게 특허와 상표법은 암기자료로 암기를 위주로 하고 기본서 회독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기본서 회독을 하려고 계획은 늘 있었으나, 다른 암기 스터디 등에 치이다 보면 못하고 끝났던 날들이 더 많았고, 결국 7월달에 암기가 어느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그간 지예스 복습하면서 쫄쫄따리로 보았던 내용들 외에 불안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1주일 동안 전체 책 회독을 감행했습니다. 이 방법은 급한 불을 끄다 보니 불안해져 한 방법이었는데, 사후적 고찰로 오히려 필요한 내용을 암기하고 기본서를 회독하니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서를 이해하고 내용을 선별해서 암기하고 난 뒤에 그 암기한 것을 가지고 지예스에 활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되면 암기가 채워질 때까지는 지예스 풀이에서 책을 보고 써야 하거나 외운 논점을 활용하는 연습이 부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각주까지 꼼꼼히 읽으며 이해가 가지 않았던 내용을 시험 1주일 전에 박형준 변리사님께 여쭙보았는데, 그 내용이 실제 시험 3~3번 정정관련으로 나와서 맞췄던 신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상표법】 59점/20쪽

상표법의 경우 3월부터 최지환 변리사님의 판례암기자료로 암기를 하였고 동시에 김세원 변리사님의 실전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때 너무 어렵기도 했고 여러 모로 막막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안보고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 3월달에 16페이지를 넘게 쓸 수 있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표법의 경우 민사소송법이나 특허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편이므로, 판례를 열심히 암기하시면 극복하실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 역시나 요약된 암기자료로만 판례를 보았고, 그 해에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최신판례들의 경우 지에스에서 풀고 복습하며 나누어 주시는 원문을 참고하였으나, 그 외의 판례들은 따로 판례집을 보지 않고 암기하였습니다. 판례집의 경우 대생 판례집을 구비하여 모르는 판례가 나오면 찾아보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3월 실전을 들으며 했던 다짐과 달리 4월에는 민소법과 특허법을 하느라 상표를 제대로 못하였고, 그래도 별다른 실력 성장 없이 5월 콜라보 지에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공부량이 부족하여 등수는 처참했고, 실력이 없으니 지에스 복습역시 오래걸려 3월에 가장 자신있던 상표법이 5월이 되어서는 가장 불안한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표법에 대한 불안감이 쌓이며 테마 기본서를 회독하려 아등바등하던 중 규해 변리사님의 추천으로 한경훈 변리사님의 피날레 책을 알게 되었는데, 요약된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아주 적합한 암기집이었습니다. 기본서 목차 순서대로 비슷비슷한 판례들이 목차화되어 쟁점과 결론을 비교하여 암기하기 아주 좋았고, 무엇보다 판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어 판결요지 암기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에스를 수강하며 피날레에 몰랐던 판례와 중요한 판례들을 표시하고 단권화하며 복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표 암기의 경우 5월달 이후로는 피날레 책 자체를 암기 스터디 대상으로 바꿔 하루 20페이지씩 암기하였습니다. 총 200쪽 분량의 매우 얇은 책으로 20페이지씩 열흘, 즉 2주 분량으로 나누어 암기하니 금방 회독수가 오르고 점차 상표법에 자신감이 붙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한경훈 변리사님의 도약 지에스 목차를 잡고 60회부터 최근 4회 분량의 기출문제 목차를 잡았습니다.

【저작권법】 56.3점/19쪽

처음에는 선택과목을 동차의 장점을 살려 1차의 기억이 생생한 디자인보호법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지인분의 추천으로 암기량이 현저히 적고 조문집을 활용하여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저작권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3년도에 학교 선배님 초청 설명회에서 김선화 변리사님의 강연을 듣게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질문도 하고 번호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선화 변리사님께서 월비스에서 강의를 하게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스터디원 분과 함께 선화 변리사님의 기초 지에스를 실강으로 4월에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배워보는 저작권법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어렵고 낯설었지만, 이후 책을 회독하고(역시 저력 저작권법 책이 150쪽 가량으로 무척 얇아서 부담이 덜해 좋았습니다) 기출문제 6개년도를 돌리고 나니 어느정도 감이 생겼습니다.

첫 년도라 소수강의 였기에 강사님이 직접 제 답안지에 대해 피드백을 자세히 해주셨고, 수업 시간 외에 수강생 분들을 한 분씩 불러서 답안지 첨삭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몰랐던 문제점들을 대거 발견하게 되어 무척 큰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실전 지에스의 경우 너무 아쉽게도 듣지 못하였는데, 당시 스터디원과 이야기 하다 보니 민소와 특허 상표가 합격선인데 저작 선택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동차생이니 만큼 삼법에 더 올인하기 위해 과감히 실전 지에스는 수강하지 않고 따로 시중에서 구하여 목차만 잡아보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장에서 잘 모르는 판례가 나왔지만 저작권 과목의 경우 조문을 적절히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글의 분량을 채우면 점수를 잘 줄것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지어서 19페이지를 작성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과목인 저작권을 다 작성하고 나서의 홀가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단권화】

단권화에 대해서는 기본서에 단권화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강사님께서 밑줄 쳐주시는 부분을 연필로 표시하고 그후 연보라색 형광펜(에센티)를 사용해서 키워드와 기본적인 내용을 표시하며 암기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삼색펜을 활용하였는데, 빨간색으로 판례, 파란색으로 학설, 마지막으로 검은색으로 검토를 밑줄치고 이후 점점 더 진한 색으로 겹쳐 표시해 가며 키워드와 두문자, 예외 등을 표시하였습니다. 한 회독 한 회독이 쌓일 때마다 책이 완성되었고, 이후에는 회독 속도가 무척 빨라졌습니다. 연보라색 형광펜은 30자루 이상 사용한 것 같습니다.

【목차】

흔히들 목차를 어떻게 잡느냐가 답안의 인상과 나아가서 합불 여부를 정한다고 알고들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목차암기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입니다.

저는 목차를, 특히 실전 지에스의 목차를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리사 2차 시험에서 목차란 암기한 내용을 활용해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바를 답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원지 체크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현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 문제를 통해 목차를 잡아보는 것이 실제 답안을 작성해보는 경험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초플러스 문제에 나오는 쟁점별 목차의 경우 실전 지에스에서 여러 복합 논점 문제를 풀기 위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본 도구 정도로 생각하시고, 어느정도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논점 파악을하고 강약 조절을 해서 목차를 현출하는 연습을 지에스와 사례집을 통해 충분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모의고사 활용】

저는 7월달에 윌비스 모의고사를 한 번 쳤습니다. 당시 저는 6월 지에스가 끝나고 약 3주 동안에 지에스와 기본서 회독을 한 상태였고, 시험때까지도 비슷하게 3주가량이 남아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제 실력이 전혀 능력이 가지 않는 상태였는데, 회독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 것 같은 기분만 어렵듯이 느껴지고, 여전히 어디쯤에 와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본가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넘는 거리에 있는 역삼까지 이틀을 왕복하며 모의고사를 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모의고사를 응시하였고, 결론적으로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그 이틀이 정말 힘들어서, 마지막 교시인 저작권법 시험 때에는 손목이 움직이지 않아 떨리는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붙잡고 억지로 답안 작성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저와 같은 동차생 분들이시라면, **6월달 지에스 성적이 시험장에서의 자기의 실력과 무관**하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점이 어딘지 약간의 감을 잡을 수 있게 해준 게 모의고사였습니다. 모의고사의 경우 표본이 작아 드라마틱하게 등수가 오르는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있지만, 7월 초에 모의고사를 응시하는 표본 자체가 실력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등수보다 실력이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진 채로 남은 기간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1회와 2회를 모두 응시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회는 지난 3주간의 공부로 실력이 얼마나 올랐는지 체크하는 용도였다면, 시험 날짜에 임박해서 치르는 2회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 주간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미리 대비해 보는 주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직전 주 마무리】

1차와 마찬가지로 시험 전 1주일 동안 전과목 회독을 목표로 하시고, 여기서 추가되는 것이 2차는 이틀이므로 **첫날 시험 끝난 뒤에 민사소송법을 1회독** 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날 시험을 치고 스카에 가서 민소법을 지금 1회독 더 한다고 내일의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여 절반 밖에 회독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시험장에서 헛갈렸거나 몰라서 합격 발표날까지도 저를 괴롭게 만든 것은 회독하지 못한 나머지 절반 부분에서 다 나왔습니다. 시험을 치고 난 후 특허와 상표, 저작권은 어느 정도 나쁘지 않게 봤다고 생각했으나 민사소송법의 경우 가장 크게 실수하고 아쉬웠던 과목이라, 저와 같은 누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활 일반

【건강관리, 멘탈관리 (슬럼프와 극복방법 등)】

☑ 건강관리 - 꾸준한 필라테스

저는 정신건강과 육체건강 모두에 운동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길게 공부하는 고시생들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장기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운동이든 좋으니 **자신에게 잘 맞고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필라테스는 남녀 노소 가리지 않고 특히 오래 앉아있어 라운드 숄더가 오기 십상인 고시생에게 강력추천합니다. 바른 자세와 관련된 코어 근육들을 기를 수 있고 칼로리 소모가 유산소 운동만큼 크지 않아 낮에 잠시 다녀와도 바로 공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 멘탈관리 - 할 수 있다는 믿음

아직도 제가 동차로 그 어렵다는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쩌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믿음을 갖고서 동차 생활에 임하는 것과 해도 의미 없는데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동차합격의 꿈을 갖고 공부하시게 되면 1) 진짜로 **합격하기 위한 공부량**은 무엇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2)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더 구체화되고, **더욱 열심히 하게 되는 선순환**이 생깁니다. 3) 결국 내가 내년에 다시 해도 이 정도로 할 수 있을까 싶은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수험생활을 두 번 할 자신이 없어지며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된 배경에는 가능성이 미약하지만 **1프로라도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그게 바로 제가 아니라는 법도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나는 안 돼. 내가 한다고 되겠어. 저사람들은 특별해.” 라는 생각을 뿌리뽑으십시오. 여러분도 특별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매일 스스로 되뇌이면 결국 꿈은 현실이 됩니다.

☑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기

수험생활에 임하다 보면 누구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자괴감에 빠져 공부를 멈추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누구나 나약하고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다양한 스터디와 생활습관, 공부장소 등을 활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벌금이 걸린 스터디가 있다면 하기 싫어도 하게 되고, 슬럼프에 빠졌다가도 계속 옆에서 달리는 스터디원 분들을 보면 금방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고, 저 역시 많은 실패들을 겪어왔지만, 중요한 것은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내일의 성공을 꿈꾸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 100번 계속 되면 1년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보면 어느샌가 루틴이라는 게 생기고, 궤도에 오르는 기분이 들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부장소, 생활리듬 (하루 시간 관리, 스터디 등)】

☑ 공부장소 - 집 근처 스터디 카페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집에서 3분 거리에 스터디 카페가 있어 그곳에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중간에 1년 정도 다니던 스카에서 문제가 생겨 급하게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옮겼었는데, 이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지만 비오거나 눈오는 날에는 짐을 들고 멀리까지 걸어다녀야 해서 매우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근처 스카는 조용하고 한적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서 면학분위기랄 것이 크지는 않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좌석이 넓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 면학분위기를 좀 타는 편이라, 처음부터 캠퍼스터디를 가입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 각종 스터디 활용

저는 친구로부터 '스터디의 신'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다양한 스터디를 활용하였습니다. 주로 공부와 생활습관에 있어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활용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특히 저는 무척 의지가 나약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여 풀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겹겹이 쌓아올리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동차 기간에 했던 스터디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스터디도 많으실텐데, 저에게 필요한 스터디는 제가 만들어서 활용했습니다.

(기상두문자 전화스터디) 동차 기간 내내 전화암기를 한 스터디원과 자기 전까지 암기 스터디를 하고 그날 외운 내용 중에서 두문자를 하나 뽑아 다음 날 아침에 기상과 동시에 외우는 전화 암기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아침에 비몽사몽 일어나기 힘든 데 머릿속에서 정보를 꺼내는 작업을 하면 뇌가 매우 빠르게 깨어나는 기분이 들어서 짬을 내어 외우기 부담스러운 두문자를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외우자는 취지로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재밌게 공부하며 효율적인 스터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착석 캠퍼스터디) 오전 9시까지 스터디 카페에 가서 앉아서 12시까지 3시간 공부를 채우는 캠퍼스터디를 활용하여 오전 공부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후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캠으로 하루에 8~10시간 정도를 채우는 스터디였는데, 저의 경우 공부 습관이 잡힌 이후부터는 12~3시간 이상씩 공부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 공부 습관을 들이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허, 상표 전화암기 - 밥 시간 활용)

저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길게는 3시간도 넘게 전화 암기를 하였는데, 매일 정해진 분량을 늘어지지 않고 진도를 나갈 수 있었고 한번 본 내용을 암기하며 다시 복습한다는 점에서 무척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차생이 이렇게 긴 시간을 매일 할애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밥 먹으러 나감과 동시에 전화를 걸어 제가 밥을 먹을 때 암기한 내용을 대답하고, 상대방이 밥을 차리고 먹을 때 책을 보며 문제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암기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감사하게도 이때 만난 스터디원 수연언니와 나이대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여 암기 하는 내내 즐겁게 웃으며 스터디를 했기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착석 인증 스터디) 사실 식사시간은 고시생의 가장 큰 낙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밥을 먹고 나면 노곤하고 나른한 느낌에 늘어져 자기도 하고, 커피 한잔이나 산책을 하겠다며 한두시간 이상을 보내다 들어오게 되곤 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고, 심지어 저는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며 전화암기를 했으므로 집 밖에 나오기까지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원과 함께 착석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내에 도착하는 것을 인증하는 스터디를 활용하여 최대한 밥시간이 늘어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전화암기 - 집가는 시간과 자기 전 활용)

특허법과 상표법은 2주를 주기로 번갈아서 한 달 동안 회독한 것과 달리 민사소송법의 경우 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양 또한 절대적으로 많았기에 매일 기본서 40페이지 정도 분량을 암기하였습니다. 주로 밤 열한시~열두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짐을 싸서 집에 가는 동시에 전화를 걸어 걸어가면서부터 집에 도착해 간단히 씻고 누워서 자기 직전까지 당일 분량을 암기하였습니다.

(회독 타임랩스 인증)

7월달에 시험에 임박하여 지에스 회독을 여러 세트 해야 했던 때에 너무 하기 싫고 늘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김선화 변리사님의 소개로 만난 스터디원 분과 지에스 한 회차씩을 복습하는 장면을 타임랩스로 찍어서 인증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목표는 하루에 5개 였는데 지에스 회독이 어렵고 오래 걸리는 만큼 기본서 1시간 회독 정도로 대체하는 등 융통성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집중력이 좋지 않은 편이라 한시간 정도 앞에 카메라를 돌리며 길게 집중력을 가져가는 용도로 잘 활용된 것 같습니다.

(스쿼트 스터디)

하도 오래 앉아있다 보니 체중이 늘고 건강이 나빠지는 기분이 들어 재시 기간에는 친한 여성 스터디원 분과 하루에 스쿼트

를 40개 정도씩 해서 인증하는 스터디도 했습니다. 역시 타임랩스를 활용했고, 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아 간단하지만 웃기기도 하고 꾸준히 하면 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들어 매우 만족했던 스터디 중 하나입니다. 재시 기간에 1차 시험이 가까워지면서 약 9개월간 했던 스터디를 중단하고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린타임 인증 스터디)

아무리 자기 직전까지 전화암기스터디를 한다고 해도 자기 전 잠깐 동안 유튜브를 안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모든 수험생 분들께서 공감하실 텐데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독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참고 참으며 공부를 하다가 자기 직전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것을 끊고 잠에 드는 일이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상 시간은 정해져 있기에 잠을 늦게 자면 다음 날 수면부족으로 집중도가 떨어져 문제가 생기므로, 휴대폰 사용 시간을 컨트롤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암기를 같이 하던 스터디원과 전화 스터디를 마치면서 다음날 오전에 외출 두문자를 정하고 매일 핸드폰 사용 시간을 정해서 다음날 오전에 스크린타임으로 인증하는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 점심 식사 - 최대한 가볍게

저는 특히 동차기간에 공부시간 확보와 공부 습관 관련된 것들 외에도 생활 전반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성향과 생체리듬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의 경우 관성이 좀 심한 편이라 한번 앉으면 일어나기 싫고, 한번 누우면 다시 앉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을 가거나 밥 먹으러 일어나는 행위 자체를 매우 줄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식곤증이 심하고 일어났다 다시 앉으면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편이라 점심 식사는 아침에 단백질 셰이크에 단백질 시리얼을 타가서 바로 앉아서 먹는 방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체중 관리와 식곤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공부 흐름이 끊기지 않아서 공부 시간을 하루 12~14시간 까지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단백질 셰이크 외에도 방울토마토나 호밀빵, 찐고구마 등 간단히 요기를 때우는 방식으로 낮 시간에 대부분을 버티고, 저녁은 암기스터디를 하며 집에 가서 차려 먹었습니다.

☑ 자투리 시간 최대활용

저는 암기 스터디가 많기도 했고 해야 하는 과목의 수가 많기도 했어서 집에 가는 길, 샤워하는 동안, 그리고 학원에 가는 시간 등 남는 자투리 시간에 강의를 듣거나 암기 스터디에서 외워야 하는 부분을 암기하였습니다. 강의나 책을 보는 것이 지루할 때면 유튜브에서 공부자극 영상이나 합격수기 영상을 들으며 스터디 카페에 갔던 기억도 매우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저는 경기도에 살았기에 주말에 지에스 수강을 위해서 역삼역까지 아침저녁으로 아버지께서 태워다 주셨는데, 그 시간에도 오전에 강의를 듣거나 전화 암기를 하는 등으로 활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주 주말마다 오전 7시반에 저를 태워다 주셨던 아버지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자투리 시간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집중력이 분산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투리 시간에 공부를 이어가면, 착석 했을 때 집중력을 바로 끌어올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관성이 센 사람이라 중간에 유튜브를 보거나 노래를 들으면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데에 한시간 이상이 걸렸기에 이러한 방법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 러닝메이트 설정의 중요성(전원동차합격)

초시 탈락 후 23년 상반기에 2차를 한참 공부하던 시절 저와 같은 점수로 재시를 하게 된 동갑 스터디원분을 만나게 되었고, 공감대가 많았던 만큼 1차 재시 기간에 함께 계획을 짜서 스터디를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스터디원분을 만나게 되어 함께 계획을 짜고 그것을 하나씩 지켜나가고, 또 고민이 생길 때에는 서로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주며 1차 기간에 월단위, 주단위, 그리고 일단위의 계획을 짜서 공부를 같이 하였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좋은 공부 방법이 있으면 공유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기본서와 객관식은 무엇을 볼지 함께 고민하며 저희에게 필요한 최적의 커리큘럼을 짰던 것 같습니다.

3월부터 7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학원을 다니고 4월에는 오프라인으로 특허 사례집 목차 잡기 스터디를 하여 한달만에 기출문제를 다 보는 등 공부 효율을 올리는 데 무척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커리큘럼도 커리큘럼이지만, 서로 **열심히 하고 의지가 되는 러닝 메이트**가 있었기에 힘들고 그만 하고 싶은 때에도 지치지 않고 **함께 동차 합격**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형준 변리사님

제 동차 합격과 특허 고득점의 배경에는 형준 변리사님의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동차들을 배려해주신 자료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학원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주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지인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박형준 변리사님 강의를 들으라고 추천해줄 정도로 진심입니다. 작년 3월, 부진정 동차로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특허법 기초 플러스 강의를 듣기 시작했을 때, 형준 변리사님께 무작정 연락 드려서 상담을 요청드렸었습니다. 그 때 변리사님께서 역삼에서 직접 만나서 밥도 사주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들과 용기를 주셨는데, 그 만남이 무척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온라인으로 기초플러스를 수강하고 실전을 들었고, 올해 동차 기간에도 꾸준히 수업을 듣고 전화나 카톡으로도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날 월비스 합격자 만찬과 설명회 때 다시 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처음 상담에서 뵈었을 때가 생각나며 만감이 교차한 것 같습니다. 늘 수험생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하시며 수험생과 가장 가까이에서 노력해주시는 박형준 변리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동차 기간 허리 부상

저는 매우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동차 기간에 살면서 처음으로 허리가 아파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4월에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찌릿하면서 엄청 불편해지더니, 점차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허리가 아파와서 당일날 공부를 그만두고 집에 와서 누워 쉬었습니다. 거의 누워있다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아파서 디스크가 터진 줄 알고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척추후관절증후군”이라는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나서 평소 자세가 안좋은 채로 너무 오랜 시간동안 앉아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치료 방법이 따로 없다는 무서운 말을 들은 이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백팩을 끌고 다니는 걸로 바꾸고 항상 등 뒤에 쿠션을 받쳐서 공부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세를 개선**하였더니 다시 괜찮아져서 5월부터는 문제없이 다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아팠을 당시에 평일 회독은 포기할 수 있었지만 주말 지에는 도저히 빠질수가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학원에 나가 쿠션을 받치고 지에스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때 수업을 같이 듣던 규해 변리사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던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빨리 회복하게 되어 고맙다 규해야!

☑ 시험 직전 컨디션 관리

여성분들의 경우 호르몬 주기와 시험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나 호르몬 주기에 따라서 집중도와 예민함, 공부효율이 무척 많이 영향을 받고 특히 당일에는 통증도 심하고 여러 모로 컨디션이 매우 나빠져 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약을 복용하여 주기를 조절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부작용이 있는 편이라 약도 복용하지 않았고, 다행히 원래는 시험 날짜와 열흘 이상 차이가 나 겹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가 늘고 잠도 잘 못자고 체중도 3키로 정도 빠지다 보니 주기가 안 맞게 되어 예정일이 한참 지나 버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험날짜와 겹치게 될까봐 더더욱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결국 마지막 주에는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까지 밀린 게 처음이기도 했고 전혀 예상도 못한 일이라 더욱 마음이 힘들었지만 걱정한다고 달라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결과 **시험일 4일 전부터 진통제**를 복용하며 버텼습니다. 돌이켜 보면 약을 복용한 탓에 컨디션이 안좋은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수험생 분이 계시다면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감사할 분들이 과분할 정도로 많습니다.

가장 먼저 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제게 하고 싶은 공부를 하라며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특히 한 번도 지각하거나 늦잠 주무시지 않는 아버지께 책임감과 성실함을 배웠고, 남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자신의 말은 바를 열심히 해내시려고 노력하시는 어머니께 끈기를 배운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이후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저를 기다려 주셨는데, 드디어 시름을 덜어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합격발표날 오전에 부모님과 함께 합격 소식을 들었는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오전부터 새벽 늦게까지 스터디를 하느라 얼굴 볼 시간도 제대로 없었던 게 항상 죄송했는데, 이제 많은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일년 반 동안 런닝메이트이자 든든한 스터디원으로써 함께 동차로 합격한 61기 오규해 변리사에게도 다시 한 번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4월달에 저에게 의의취지와 문제의 소재 분량을 줄이라고 조언해주었던 게 잊그제 같은데 어느새 3만자가 넘는 수기를 작성하고 있더니, 두 머치 토크와 그간 함께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차 합격의 또다른 일등공신인 수연언니에게도 너무 고맙습니다. 눈 뜨는 순간부터 잠에 들기 직전까지 하루종일 스터디를 하면서 늘 서로를 응원하고 또 함께 웃으며 보낸 지난 5개월의 시간이 정말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작년부터 랜선으로 수다를 떨며 웃고 울던 현영 언니 덕에 힘들고 외로운 동차 기간에도 실없이 웃으며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편할 수 있게 재치 있고 가식 없이 대해주셔서 고맙고 진심 어린 응원에 또 한번 감사합니다.

초시 기간에 책을 구하다 만나게 된 호신 오빠에게도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방향성을 잡고 교재와 강의, 커리큘럼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 정보를 주시고 자료도 공유해주시고 또 으쌰으쌰 하게 해주신 윤상님과 부진정동차 기간에 상표 전화암기 스터디를 하며 힘을 내주신 무성님께도 감사합니다.

처음 고시 공부를 시작할 시절에 만나 늘 가장 가까이에서 진심으로 절 응원해주고, 또 가장 먼저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을 해준 하선이에게도 너무나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선이 덕분에 정말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늘 건강하고 잘 챙겨먹어야해!! 조만간 만날 날만 기다릴게!!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늘 같은 모습으로 제 곁을 지켜준 중학교 친구들 현지, 유진이, 예은이, 헤민이, 준호, 현준이, 재은이, 체언이, 운장이, 규홍이, 지인이, 혁준이, 종인이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시간이 없는 저를 위해 자주 저희 스카까지 와서 함께 공부해준 현지에게 고맙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애들아 우리 이제 여행가자!! 연말에도 꼭 모이기!!

고시 생활 동안 한결같이 저를 배려해주고 늘 사랑을 담은 말과 위로를 전해주었던 나겸이에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꽃길만을 걸었으면 좋겠어, 대전에서 만나자!

20살 때부터 제 곁에서 성장하며 함께 울고 웃은 라혜, 승현언니, 민지언니에게도 진심을 담아 감사를 전합니다. 재시 기간에 1차 모의고사를 응시하고 강남에서 만났던 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연말 파티에 초대해줘서 급하게 다녀왔던 때, 재수종합반 시절을 회상하며 울고 웃던 수많은 나날들, 서로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고마운 친구들이 있어 그저 감사합니다. 올해는 정말 그동안 미뤘던 여행을 꼭 가자고 약속해!

부족한 피어리더를 동기로 받아주고 진심으로 응원해준 자랑스러운 엘씨 친구들 가영이 현민이 효정이 원규 영서 세현이 예원이 민선이 서현이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가끔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즐겁고 편안했던 민사고 친구들, 특히 휘수 영서 서현이 지호 수지에게도 고맙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 미처 언급하지 못하였지만, 그간 저를 응원해주시고 또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알랭 드 보통이 한

“성공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만족하기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저 역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실망했고 끊임없이 여러 위기와 멘탈이 꺾이는 일들이 있었으나, 그 속에서도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컸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담아 오랜시간 정성들여 쓴 만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길고 긴 수기를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